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0. 3. 31. (수) 총 4매(본문3, 참고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담 당 자	· 과장 문유진, 사무관 박지윤, 주무관 주재형 · ☎ (02) 2131-2022, 2023	
	서울특별시 전략계획과	담 당 자	· 과장 윤호중, 팀장 강대양, 주무관 신은진 · ☎ (02) 2133-2586, 2588	
보 도 일 시		2021년 4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31.(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긴 호흡으로, 용산공원 국민과의 대화 시작

-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에서 국민 참여단 첫 정기 워크숍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직무대행 서정협)는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이하 “참여단”)의 3월 정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舊 장교숙소 5단지) 산책으로 시작한 첫 번째 워크숍에서 참여단은 공원의 첫 인상과 미래상을 공유하고, 논의주제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3.13.(토)~3.14.(일) 용산공원 부분개방 부지에서 개최, 용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국민권고안을 마련할 국민 참여단 약 200명 참석

- 참여단은 지난 7주 동안(1.25.~3.12.) 사전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공원의 역사와 비전, 조성방향 등 배경지식을 학습한 참여단은 3월 첫 정기 모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열정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 상반기에는 매달 정기 워크숍과 다양한 체험활동 및 주제특강 등을 통해 논의의 깊이를 더해 나갈 예정이다.

<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 운영계획 >

1~2월	3월	4월	5월	6월
온라인 교육	대화의 시작	견해의 공유	논의의 전개	담론의 정리
배경지식 학습 - 용산공원 개론 - 역사배경 설명 - 공원계획 소개 - 주변지역 소개	브레인스토밍/클러스터링 - 부분개방부지 산책 - 브레인스토밍 - 첫인상·미래상 공유 - 논의 키워드 도출	타운홀 미팅/주요 이슈도출 - 용산공원 둘레길 투어 - 집중 논의 키워드 - 자유토론·마인드맵 - 찬반 이슈 정리	시나리오 워크숍 - 이슈별 여러가지 시나리오 도출 - 시나리오별 집중 토론 및 최적인 모색	최종 제언정리 - 그간 논의내용 리뷰 - 권고안 방향설정 - 권고안 세부내용 숙의

□ (첫 인상, 미래상 공유) 첫 워크숍에서 참여단은 용산공원의 첫 인상으로 “한국 속 미국”, “역사의 발자취”, “도시의 생태·교통·문화의 축”, “용산공원 자체가 기존 건축물을 전시물로 하는 하나의 큰 박물관 같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 공원의 미래상으로 “정체성이 뚜렷한 세계적인 랜드마크”,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공원”,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공원”, “다양한 생태·교육·문화 이벤트로 지루할 틈이 없는 공원”, “캠핑하며 1박 2일 동안 생태·문화·역사를 탐닉할 수 있는 공원” 등을 제시하였다.

< 국민 참여단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舊 장교숙소 5단지) 산책 및 3월 워크숍 >



- (논의주제 구체화) 또한, 참여단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10개 분임으로 나뉘어 ①용산공원의 정체성, ②용산공원과 지역사회, ③공원의 국민적 활용, ④공원 일대의 역사문화유산 이해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 및 브레인스토밍 등의 논의활동을 진행하였으며,
- 용산공원에 비친 우리나라, 도시에서의 용산공원 역할, 공원과 주변 지역의 연결, 공원으로 변화하는 주변지역의 미래, 활용성 높은 공원 모색, 넓은 공원 내 이동수단, 사회적 약자 배려 등으로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여 후속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 세부 논의주제 >

논의주제	세부 논의주제
1. 용산공원의 정체성	용산공원에 비친 우리나라(국가공원, 한국적 경관의 의미),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 본 용산공원 의미
2. 용산공원과 지역사회	변화하는 주변지역의 미래상 고찰 공원과 주변지역의 연결 도시에서의 용산공원 역할 등
3. 용산공원의 국민적 활용	활용성 높은 공원 구상 공원 내 이동수단 장애인·사회적 약자 배려 등
4. 용산공원 역사 문화유산 이해	용산공원 역사문화유산의 형성과 변화과정 이해 용산공원 역사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모색 등

- 관계기관은 용산공원 국민소통 누리집(www.yongsanparkstory.com)을 통해 참여단의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매월 말 참여단 논의과정을 브리프, 카드뉴스 및 영상 등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공개하고, 일반 국민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조성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추진기획단의 박지윤 사무관(☎ 02-2131-2022), 주재형 주무관(☎ 02-2131-2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의(서울시, 23세)

“한국 땅을 한국인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생각하여 참여단에 지원, 용산공원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이 공간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임정아(대전시, 26세)

“그간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용산공원을 직접 방문하게 되어 기쁨, 공원을 통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

강진현(경기도 고양시, 25세)

“세 번째 방문하게 된 용산공원은 알수록 새로운 양과 같은 공원, 새로운 사람들과 견해를 공유하고 역사도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참여단 활동이 더욱 재미있어짐”

김정희(서울시 용산구, 63세)

“70년대 우연히 방문했던 용산공원에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로움. 젊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용산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감동,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면 세계적인 공원이 될 것이라 생각”

장복규(경기도 양주시, 45세)

“넓은 공원을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둘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음”

박재현(서울시 용산구, 66세)

“용산공원은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근현대사를 그대로 담은 공간이라 생각, 이 땅이 겪어 온 역사를 방문객들이 알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되길 희망”